

일병목회강좌 사무엘서 4강

정리 : 최희영 목사

1. 다윗 생애의 무게중심

- 다윗의 생애에서 마지막에 큰 폭풍처럼 터지는 사건은 인구조사이다. 그러나 그 의미가 너무 약화되어 버렸는데, 다윗의 영웅적 면모와 너무 동떨어져 보이기 때문이다.
- 다윗의 후반 생애에 일어난 사건들이 이야기하려는 것과 성경 전체의 의도가 어떻게 일치하는가 확인해야 한다.

2. 성경의 큰 이야기 (Meta-Narrative)

1) 구원의 완성, 영광

-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선포이다(요3:16).
- 믿음을 조건으로 삼는 바람에 예수의 오심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 재창조, 부활의 권능, 창조가 그런 것 같이 | 부활이라는 것이 창조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권능과 자비와 긍휼 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선포인 것을 놓치게 된다.

2) 방해세력, 죄 (롬3:21-24)

- 죄는 영광에 미흡한 것,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에서 빛나간 것이다. 구원은 영광을 다시 완성하는 것이다.

-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죄의 진면목이다. 영광의 문제이다.

3) 방법, 고난 (롬8:14-21)

- 영광을 완성시키는 방법은 고난이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이다.
-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은 다만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했던 영광의 자리로 가는 가장 중요한 모범적이며 필연적인 과정/모습/방법이다.
- 대속 사건을 희생과 고난과 순종이라는 단어로 묶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데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4) 선택은 자유

- 자유가 허락되어야 믿음과 사랑이 가능해진다. 믿음과 사랑은 강요할 수 없다. 대등한 인격적 관계에서만 성립된다. 100% 자발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다.
- 믿음이나 순종은 방법 상의 조건이 아니다.
- 뭘 받아서 내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허락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완성된 내용을 채우는 것으로서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5) 최종 도착지(Destination), 영광의 자유 (롬8:31-34)

-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려고, 고난을 받게 하신다. 그

리하여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믿음이 증언했던 하나님의 목적인 영광의 자유를 갖는 것이다.

-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쁨으로 항복하는 자리에 가는 과정이 고난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 항복하지 않는 조건과 시간을 끌어서 반복된 과정과 경험과 실패 혹은 성공이 어우러져서 우리를 그곳으로 몰고 간다.

3. 신앙, 실존의 차원

1) 기독교 신앙관

- 1차 신앙관은 순도이다. 순전함과 진심의 문제이다.
- 2차 신앙관은 실천이다.
- 3차 신앙관은 실존, 인격(character)이다.
-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의 주연배우들의 가장 중요한 도전은 각각 자기만의 독특한 주인공을, 즉 character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2) The Road to Character

- 순전함 | 1차 신앙관 | 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 2차 신앙관 | 는 것으로 밀려 올라간다. 그러나 실천의 문제는 다만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나’ 라는 인격, ‘나’ 라는 존재가 그 때의 정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수반하는데, 이 역할을 아는 것이 바로 인격, 즉 character | 3차 신앙관 | 이다.

- 하나님은 우리를 | 예수를 믿고 예수의 임재와 예수에게서 보인 권능과 기적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 한 실존, 그 시대의 조건, 그 시대의 한계, 그 시대의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사람으로 부르시고 목적하시고 쓰시고 행복을 받아내신다.
- 1차 신앙관에 묶이면, 자기가 아는 최선, 자기가 아는 최고, 자기가 아는 지고한 어떤 개념이나 명분을 종교라고 생각한다 (롬10:1-3).
 - 그러나 하나님은 상상의 최대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의 하나님이다.
 -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준 자유를 잘못 쓴 자를 잘못된 가운데서 뒤집을 수 있다.
 - 그 고난을 겪는 우리를 울고 불고 후회가 전부인 것 속에 담음으로써,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보다 몇 배나 더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시려는 것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다.
- 하나님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후의 사건들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담으신다.

4. 열매, 그것은 사랑

1) 열매, 나무의 정체성 (마7:15-27)

-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열매로 확인한다. 열매는 나무의 정체성이다.
 - 성경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한다. 자기 의에는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가 없다. 죽었다 깨나도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갈5:19-23)

- 다윗에게서 보는 놀라움은, 초반의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 하던 다윗에게는 다만 그가 멋있다는 사실만 남을 뿐이나 열매가 없다.

2) 열매, 죽음을 지나 맺히다. (시40:1-7)

- 다윗이 죽을 것 같고 방법이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 남은 것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난과 죽음 밖에 없는 곳에서 | 헤맬 때,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한 것과 잘못된 것이라는 1차 세계관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인격이 되는 자리 | 그 열매를 알고 소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 | 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다.
 - 이는 창조 때에도 목적하신 것인데, 우리가 실패하자 더 분명하게 한 것이 예수 사건으로 인한 구원이며 부활이다.
-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자 하시고 믿음을 나누자 하신다.

3) 피해를 감수하는 사랑, 영광 (요13:31-35)

-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여 그 피해를 받음으로써 영광을 받았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영광은 사랑이다.
 - 사랑은 100% 상대를 위하는 것이다. 이기심이 없는 것, 공같이 없는 것이다.
 -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가 오시지 않은 자에게는 사랑할

생명과 능력이 없다.

- 예수의 이름은 사랑하시는 이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이름, 자신을 배신하고 죽음에 내어주는 일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영광이다(요14:8-15).
-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 없이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세우셨다. (로완 윌리엄스)
- 은혜는 우리를 책임으로 밀지, 방임으로 밀지 않는다. 죄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은혜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보다 명예로운 자리로 가게 한다. 책임을 지게 하며, 책임은 자유를 전제한다.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 탕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대조는 돌아온 아들의 항복과 그를 위한 잔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아들의 불평에 있다.
 - 큰 아들에게, ‘나갔다 돌아온 것이 어떻게 최고의 가치이겠느냐, 그러나 돌아온 것이 시작이고 기뻐해야 할 일이다. 네가 여태 한 일이 훨씬 명예로운 일인데, 무얼 굳이 나갔다 돌아와 시간을 허비하겠느냐’ 는 것이다.

4) 사랑으로의 초대 (요17:21-26)

- 이 하나됨으로의 초대, 사랑과 영광으로의 초대,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이려는 것이다.
 - 다윗 생애의 기록 속에 후반부는 흐지부지해 보이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영웅의 결론으로 보이지 않는 삶이지만, 실

제로 그 안에 채운 것은 예수의 생애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것이다.

- 우리는 주께서 열어놓은 길을 따라 | 주께서 이루신 열매들을 우리 안에 실체화하고 | 우리를 보는 자에게 넘쳐나, 그들을 생명으로 부르고 명예로 부르고 사랑으로 부르는 인생을 살게 한다.

5. Context, 켜켜이 쌓인 시간

1) 복잡하고 피눈물 나는 시간

-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와 사랑과 믿음과 같은 것들이 이런 복잡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런 피눈물 나는 시간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 종교가 하나의 이상이고 개념이고 깨우침일 것이라 오해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공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셨다. 인류의 역사와 인생이 모두 시간 속에 있다. 전과 후라는 순서를 가진다.
 - 앞과 뒤, 전과 후라는 순서를 가진 것을 context | 문맥, 정황, 경우, 그릇 | 라 한다.
 - context 속에 text를 담으면 text의 이름을 쓴다. 담겨 있는 내용으로 담는 그릇이 이름을 얻는다.

2) Text, context에 삼켜져서 context를 삼키다

- 메시아를 보고 싶어 하는 헬라인에게 메시아인 증거로 죽음을 보이겠다고 하신다(요12:20-24).
- 우리 스스로는 길가이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떨기 받이기 때문에

만들 수 없고 결실할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부활 하듯이 부활 생명과 부활 구원을 이름으로써, 그 땅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마13:10-17).

- 예수가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부활을 만듦으로써 우리는 예수의 사람, 부활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 우리가 부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부활을 이루시자, 무덤에 부활을 이루시자 그 무덤은 더 이상 무덤이 되지 않고 부활이 되는 것이다.
- 내가 만들어서 결실하지 못한 것을 예수로 내 안에 결실하여, 나는 내가 아니고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다(갈2:20).
 -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예수다. 존재론적 예수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새로 만드셨다.
 - 예수의 부활이 나의 내용이 되게 하셔서, 내 안에 부활을 담으셔서 내 이름은 이제부터 예수이고 부활이고 영생이다.

3) 그가 그릇으로 쓰신다면, 무덤이라 한들

- 내가 피조물인 것과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과 내 스스로는 생명을 만들 수 없었던 것을 납득하고 절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
- 역사를 보는 눈, 결과를 아는 자로서 본다. 그 결과를 자기가 납득하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 일반 역사도 예상과 다른 결과가 자주 나왔다. 실제로 각 시간과 각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고민을 했을지 어떤 운이 작용했는지 놓친다. (나라모토 다쓰야의,

시바 료타로의 나라 흠친 이야기 서평)

- 원칙대로 보상받은 것으로는 훌륭해지지 않는다.
- 사람은 죽음의 관문을 몇 개나 통과했는지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 이 context, 이런 과정에 우리를 몰아넣어서 실제로 우리를 살아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의 위협, 사망의 위협과 하나님의 자비를 대조시킨 인생을 신학이나 공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겪게 하는 것이 역사이다.
- context가 만들 수 없는 text를 담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만든 용기에 담는 것이 다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며 부활의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속에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담을 수 있다. 죽음에다 부활을 담았다.
 - 우리는 안심을 원한다. 안심은 앞뒤가 맞는 것이다.
 -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때, 그리고 그 내용을 담는 조건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앞뒤가 맞지 않는 context에 text를 담으신다.
 - 우리가 그 context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설을 만듬으로써 담을 수 없는 데 담았다는 것으로 우리의 상상을 깨는 것이다.
- 동정녀 탄생의 예언과 성취는, 인류 역사를 붙잡고 있는 가장 큰 frame이며 토대인 시간을 하나님이 뒤집을 수 있다고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이며 나중이다.

4) 인생, Text를 실제화하는

- 우리 인생이 귀한 것은 우리의 잘못된 과거가 우리의 결론을 운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결론을 만들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 2000년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에 끝이 나 있다. 그의 부활 사건으로 인류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
- 뒤이어 오는 세대 속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시작하여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은 후에, 두 사이에서 버둥거리는 시행착오를 겪어 완성되는 시간을 허락하신다.
- 이미 완성되어 있는 운명을 아담의 후손으로 | 우리 선조가 했던 조건 속에서 | 태어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공포와 사망이 권력인 세상을 살아보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과 영생과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
- 그러나 세상 권력 구조가 계속되는 그 연장 선상에서, 믿음이 지고 희망이 부서지는 속에서 절망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다시 올게 되는 것은 세상은 아무리 붙잡아도 답이 되지 않고 명예가 나오지 않고 영광된 본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와 | 그런 변덕과 부정과 후회로 인하여 | 가슴을 찢고 울고 불고 사람이 만들어서 드디어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의 길에 들어선다.
- 잘난척하고, 비난하고, 욕먹고, 겁먹고를 거쳐, 나이를 들듯

이 끌어안는 자로 실체화해 나간다.

6. 다윗을 아는 자의 삶

1) 인내

- 세상에서는 사망이 이기지만 예수 안에서는 생명이 이긴다(롬 8:1). 그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에게 변명할 수도 없다. 자기가 걸어야 하는 길이다.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길이다(사53:7).
- 말 없이 모든 오해와 모든 수치와 모든 헐박 속에서 가서 부활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 오라고 하신다. 새로 문을 열라는 것이 아니라 열린 길로 들어와 모든 세상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그것이 어떻게 현실인가를 증언하는 명예로운 길을 걸으라고 요구한다.

2) 질그릇 같은 삶 (고후4:5-12)

-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 같은 삶에 가졌다(메시지, 유진 피터슨)
- 세상은 죽이는 자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살리는 자라는 불협화음이 만드는 이중주가 인생에 담겨 있다. context는 사망이고 text는 생명이다.
- context를 승리로 만들어 놓으면 text가 생명이 들어 오고, context가 절망이 되면 text가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 수모를 당하고 감수하는 것으로서 세상 사람이, ‘그 context에는 어떤 text도 들어올 수 없다. 그럼 이들은 누구냐’ 고 물

어보게 된다.

3) 선한 역할 (롬12:14-21)

- 악당이 악한 일을 하는 것같이, 선한 역할을 맡은 자가 선한 역할을 하라.
- 믿음은 아브라함의 생애로 증명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이 헤맸으며 그 헤맨 것이 마지막에 결론이 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왔다는 것을 역사에 묻어서 만든 것이다.
-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시니 어떤 context라도 겁날 것 없다. 그 context들은 나쁜 조건이 아니라 현시대가 구체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내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context이다. 우리는 한국에 태어났고 이 시대에 태어났으니 이 시대의 한국, 이 사회와 이 생명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이다.

[질의 응답]

- 다윗의 순종

▶ 제 1차 신앙관도 2차 신앙관도 필요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인격 속에 character가 됨으로써 그것이 명분이고 규칙이고 선행인 가치보다 더 큰 존재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선행을 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의 반응 실력 성격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은 규칙 상벌 실천의 유무를 넘어서 한 인간을 존재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 창피함을 극복하는 법

▶ 겸손은 적극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피가 마르게 창피해 봐야 만들어진다. 우리의 최선으로 못 만들고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겸손을 넣어주신다. 잘못된 것은 수치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고 부활 생명이라며 겸손을 넣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담기 위해 그릇을 깨신다.